

〈지상토론 | 학교는 필요한가〉

# 자유학교, 환상과 허구 좇는 위험한 발상

안기성 |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제도교육은 인간이 오랜 삶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의 하나다.

탈학교나 대안학교 운동은 정제되지 않은 환상과 허구를 좇는다. 더구나 그 제도의 성과도 확인되지 않은 환상적이고 공허한 발상을 맹목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일은

우리 아동과 사회 공동체의 미래를 담보로 모험을 거는 일이다.

1960년대 이래 구미 여러 사회에서 제기돼 오던 '탈학교'나 '대안학교'와 같은 '자유학교' 운동이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일기 시작해 적잖은 파문을 던지고 있다. 그중 탈학교 운동은 멀리서 1762년 아동을 자연에 방임해 멋대로 키우자는 루소의 《에밀》이 출간되면서 이미 시작됐지만, 비교적 활발하게 논의된 것은 1925년 니일의 《섬머힐 스쿨》이 출간된 이후부터였다.

## 기존 학교체제 철저히 부정

이 운동은 기존 학교체제의 모순을 지적하고 이를 철저히 부정한다는 점에서 모두 그 뜻을 같이하지만 실제로는 여러가지 형태로 나뉜다. 즉, 아동의 요구를 존중해야 한다는 고전적인 자유학교론, 기존의 학교 틀 밖에서 자유를 추구하는 새로운 학교론, 기존의 학교를 해체 하자는 탈학교론, 빈민을 위해 완전 무상제로 하자는 무상제 학교론 등이다.

이들은 기존 학교는 문자해독능력과 창의력, 그리고 사회에 대한 이해와 소외당한 사람들에게 대한 기회의 확대 등을 향상시키려는 원래의 목적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사회에 한정된 기여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의해 그 목적에 맞춰 사람들을 조직화하고 획일화하는 일에만 열중한다고 비판하는가 하면, 이들 학교가 수행한다는 참여와 사회적 역할의 선택, 그리고 교화 등을

포함하는 기능의 다양성에만 몰두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반대한다. 따라서 이런 운동을 일반적으로 아동의 자유를 중시한다고 해 '자유학교'라고도, 기존의 학교를 대신하는 제도를 추구한다고 해 '대안학교'라고도 한다.

이런 운동이 우리 사회에서 관심을 모으게 된 것은 80년대 니일의 《섬머힐 스쿨》이 번역되면서부터다. 현행 교육개혁안에는 적잖게 《섬머힐 스쿨》의 고전적인 자유학교나 탈학교의 이념이 수용돼 있을 뿐 아니라 이미 우리 사회에는 실제 대안학교가 많지는 않으나 공비(公費)의 지원을 받으면서까지 현실적으로 설립돼 문을 열고 있다. 그러나 이 탈학교론이나 대안학교론의 발상이 현실화되면 될수록 우리 주변에서는 그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적잖게 높아지고 있다. 그것은 무슨 이유인가?

## 환상과 허구 좇는 무모한 행태

물론 탈학교나 대안학교에 대해 호의적인 사람은 학교체제의 모순을 지적하고 교육적 이상을 추구하는 한편 교육의 개선을 바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움직임은 어쩌면 환상과 허구를 좇는 것이나 다름없다. 교육은 항상 우리 생활 속에서 이뤄지는 현실적인 인간의 작업인 까닭이다.

교육은 아동의 자유만을 존중하는 것으로만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오랜 경험을 통해 획득하고 축적해온 문화유산도 전달해야 하고 모든 인간이 사회공동체와 함께 살아남기 위해 가치·규범·관행 등을 공유하는 사회통합의 과제도 달성해야 한다. 탈학교나 대안학교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말대로 교육이 아동 자신의 자유만을 존중해야 한다면 이 사회는 방종과 이기심으로 머잖아 와해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교육은 사회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자유란 고귀한 것이기는 하지만, 책임이 따르지 않는 자유란 사회를 방종으로 이끄는 위험한 존재다.

우리가 탈학교나 대안학교에 대해 맹목적으로 호의적인 사람들을 무정부주의자로 낙인찍으려는 것은 그들이 사회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서는 책임지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방종으로 질서를 잃은 사회에서는 그 누구도 자유를 누릴 수 없다. 적잖은 사람들이 탈학교나 대안학교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정제되지 않은 환상과 허구를 좇고 있다는 데 있다. 더구나 그 제도의 성과도 확인되지 않은 환상적인 공허한 발상을 맹목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일은 우리 아동과 사회 공동체의 미래를 담보로 모험을 거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탈학교나 대안학교에 연루된 사람들은 우리의 자녀와 사회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자중하고 자제해야 할 것이다. ●